

영미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한 호*

(아주대학교)

김현옥**

(아주대학교)

Han, Ho & Kim, Hyeon-Ok. (2007). English teachers' perception of teaching English cultur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4), 271-29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English teachers think about what and how to teach culture, as a way of helping students build relevant background knowledge and enhance their motivation in learning English. A total of 300 teachers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in four areas: (i) their understanding and liking of English-spoken countries, (ii) their use of materials and tools for teaching culture, (iii) their consciousness of teaching culture, and (iv) their needs for culture learning in the teacher-training program. The results show that (i) they think American culture is dominant in EFL but they are much interested in British culture; (ii) they rely on internet most for their cultural experience while they think students get much of the cultural information from textbooks; (iii) they are very much conscious of the importance of teaching culture for improving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iv) they want to learn in the teacher training program more about cultural practice, which can be subsumed under the so called 'small c'. The findings suggest that (i) textbooks need to include contents to promote students' cultural awareness and foster intercultural competence, (ii) teachers should use authentic materials with appropriate adaptation, and (iii) a teacher training program should cover a wide range of contents and skills for teaching culture.

[English culture/teaching culture, 영미문화/문화교육]

I. 서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과 문화

* 제1저자 ** 제2저자

란 특정 집단에 의해 공유된 지식과 행동방식 및 그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사소통의 목적은 지식의 공유나 감정의 전달이므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외국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즉, 대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해야 하듯이, 다른 언어권의 화자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언어권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양식 및 태도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어로서 영어라는 외국어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집단의 다양한 문화양상과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영어권 문화는 세계문화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영어학습자들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간접적으로 영어권 문화를 접할 기회가 풍부하다. 이런 환경에서 체계화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영미문화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교실에서 학습하는 것이 주가 되는 EFL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교실 수업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한 학습이 병행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그간 문화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영미문화의 비교(박형기, 1982; 이해란, 1997)나 교과서의 분석(유범, 2002; 이완기 & 차경환, 1999; 현정은 & 김현숙, 2002)을 통해 언어재료로서 영어권의 문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조명해 왔다. 영어수업 현장에서 영어권 문화의 경험은 물론 교재나 문화비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교재에 포함된 문화항목과 관련지식의 체계화는 상당부분 교사의 선택과 지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근래의 관련 선행연구(김혜련, 2003; 이완기 & 차경환, 1999; Park, 2004)들이 교육현장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점이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연구들 중 대부분이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완기와 차경환(1999)은 영미문화 지도에 관한 문헌조사 외에도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 요소의 분석, 초등영어 교사들의 문화의식의 설문조사, 원어민의 면담과 조사를 거쳐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항목을 수집하고 필수 요소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지도원리와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완기와 차경환의 연구가 문화요소의 비교 대상을 “영미”권으로 선정한 반면, 김혜련(2003)은 세계어와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실제적인 기능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영어권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영어교육에서 새로운 문화교육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연구는 서울·경기권의 초등교사 각각 228 명과 126 명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의 인지도와 내용에 관한 설문에 기초한데 반해, Park(2004)은 방학 중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광주, 전남지역의 초등교사 183 명을 상대로 영어권 문화에 관한 인지도와 태도 조사 외에도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의 문화교육 관련 과목의 필요성에 관한 요구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혜련(2003)과 Park(2004)에 참여한 초등영어교사들은 영어교육에 있어 문화지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영국과 미국 위주의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향의 수정이 요구되며, 교사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목표어권의 문화지식을 넓히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방법과 절차를 익히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김혜련(2003)은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 초등영어교사간의 문화지도의 의의 및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비전공자 교사의 경우 문화지도와 관련된 수업과 훈련을 받은 경험이 부족함을 들어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초등교사들의 경우 중등 이상의 영어 전공자들에 비해 문화적 지식이 부족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등교사들의 문화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중등영어교사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에서의 요구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들의 영어권 문화와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중등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미문화 지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표어권의 문화 인식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중 가장 포괄적인 조사영역을 포함한 Park(2004)를 참고하여 다음의 네 가지 영역의 주제를 정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① 영미문화¹ 국가에 대한 인식
- ② 영미문화 학습/경험 매체에 대한 인식
- ③ 영미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 ④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의 영미문화 교육

본 연구는 우선 언어와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진술된 영미문화 교육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위의 네 가지 영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교육 현장에서 현재 관찰될 수 있는 영미문화 교육의 양상과 교사들의 목표어 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와 바람직한 영어권 문화지도 방안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할 문화지도 구체적인 영미문화경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¹ 영미문화라는 용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연수프로그램에서 수강한 문화지도관련 교과서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영국과 미국의 문화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영어 상용자들의 문화라는 큰 범주로 간주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II. 외국어 학습과 문화교육

1. 언어와 문화에 대한 견해

언어란 다른 생명체와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갖는 특징으로서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언어를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언어의 내재적 측면을 고려하여, 언어란 제한된 수의 기호로 구성된 규칙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언어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대개 언어와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두 번째의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따라서 문화를 구축하고 문화 패턴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Moran(2001, pp. 4-5)은 다음과 같이 여러 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다.

- ① 문화란 일종의 문명화라고 보는 견해인데, 사람들의 역사, 사회제도, 예술, 건축 등의 성과물(Big C: big culture)과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나 관습, 전통 등(Small c: small culture)의 두 가지로 문화를 구분한다(Halverson, 1985).
- ② 문화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소통 자체로 보는 견해로서 Hall(1959)이 제안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방법이다.
- ③ 문화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와 인식, 가치체계나 태도 및 행동 등과 같은 일반화된 개념에서 파악할 수 있다(Kohls & Knight, 1994).
- ④ 문화를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소통, 즉 타 문화권에 들어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Lustig & Koester, 1999).
- ⑤ 문화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권력과 영향력 및 권위와 지배력 등을 발휘하는 영역이다(Banks, 1991).
- ⑥ 문화란 사람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의 구축으로서 가치와 신념의 체계를 산물로 한다(Geertz, 1973).
- ⑦ 진화적인 심리학 입장에서 문화란 인간이 공유하는 언어와 행동 등의 보편성이 의사소통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으로 본다(Brown,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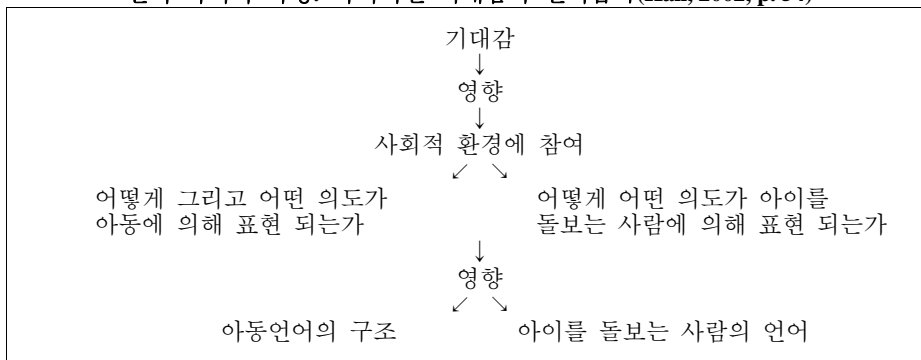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들에서 공통적인 핵심개념은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한 문화의 공유다.

언어와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중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이 언어를 통해 개인적인 사고체계(가치관과 신념)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Sapir-Whorf 가설로 대표되는 언어결정주의(linguistic determinism)나 그 보다는 약한 언어상대주의(linguistic relativism)이다(Shaul & Furbee, 1998). 이 가설은 언어는 그 사용자자들의 의식과 문화를 반영하며,

언어구조에 의해 같은 언어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이 달라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가설은 언어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Whorf(1956)의 Hopi 부족의 언어에 대한 연구나 Shaul 과 Furbee(1998)에서 제시된 여러 증거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Ochs(1996)와 Ochs 와 Schieffelin(1982) 등은 언어와 문화 간의 관계를 양자에 대한 의식의 발달을 기저로 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와 문화는 동시에 습득되고 발달하는 것으로, 그 습득 과정에서 인간은 사회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며 사회화의 단계를 밟아간다. Hall(2002)은 언어 습득과 사회화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여, 인간의 이러한 언어습득의 측면을 언어사회화(language socialization)로 규정하고 동일한 언어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의미개념구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1
언어 사회화 과정: 사회적인 기대감과 언어습득(Hall, 2002, p. 54)



위 그림에서 보듯이, 아동이 습득하는 언어형태와 그 형태에 상응하는 의미개념 구조는 사회활동에서 구축된다. 의미개념 구조의 구축이 바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득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언어사회화는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언어사회화의 시각은 Moran(2001)의 문화영역이론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 Moran 이 기술한 언어와 문화 간의 관계는 본 연구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는 문화 영역을 산출물(products), 관습(practices), 관점(perspectives), 집단(communities), 개인(persons)으로 나누고 관점이 가장 기초를 이루며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이 다섯 가지 문화 영역의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며, 외국어 학습에서는 목표언어권의 문화와 관련한 위의 영역들을 경험이 학습 동기 유발과 외국어 구사능력 및 지식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문화 간의 관계를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자면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언어와 문화(Moran, 2001, p. 36)

문화영역	언어와 문화간의 관계의 본질
산출물	문화적 산물에 대해 설명하고 산물을 적절히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관습	문화적 관습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관점	문화적 시각을 규정하고, 설명하며,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집단	특정 문화집단에 적절하게 참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개인	특정 문화 내의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표 1 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문화 영역의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며, 외국어 학습에서는 목표언어권의 문화를 위의 영역들로 구분하여 지각하게 하면 학습동기의 유발과 외국어 구사능력 및 지식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Ochs 가 주장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문화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표 1 의 영역에 대한 언어가 구체적이고 차별적으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소절에서는 언어와 문화, 각각의 정의와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 소절에서는 우리나라의 EFL 교실 학습 상황에서 영미문화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문화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영미문화와 영어교육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해당 외국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작업이 병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목표언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생활하며 직접적으로 그 문화를 체험하여 체득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국가에 가지 않고서 출판물이나 영상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문화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 등 정보전달 및 공유 매체들이 발달하여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의 경계가 상당부분 겹쳐지는 상황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전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목표어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더욱이 영어가 목표외국어인 경우는, 영미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문화권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미문화를 접촉하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EFL 상황에서의 영미문화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시발점은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에서 명기된 지침이므로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제 8 차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문화적 이해와 소양을 기르는 것이 영어학습의 목표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수업시간에 개별적으로 가르쳐야 할 영미문화 항목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권장하는 소재에서 문화항목들을 대략 찾아볼 수 있다. 제 8 차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소재는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p. 57).

- ① 개인생활에 관한 내용
- ②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 ③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 ⑤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 ⑥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 ⑦ 동물, 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 ⑧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 ⑨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⑩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 ⑪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⑫ 공중도덕, 예절,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 ⑬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⑭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⑮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근로, 진로 문제 등 개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시민 생활 등 민주의를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교실수업에서는 위의 소재 등을 다루도록 한 검인정 교과서들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교과서들은 별도의 문화항목 설명을 담고 있거나 위의 소재들을 다룬 지문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미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영미문화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은

영미문화 항목들을 과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강조할지, 어떤 항목들을 소개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구들을 이용할지 등에 대한 여러 선택들에 직면한다.

현재 교사들이 현장에서 영미문화의 교수/학습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위의 선택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 및 문화 교수/학습에 대한 인식은 통시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에서 소개할 설문조사 결과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05년 경기도 소재 A 대학 중등영어 1정 자격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300명의 현직 영어교사들로서, 이들은 5주간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목별 평가를 받았다. 한국어로 진행된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영어회화, 영어작문, 듣기 연습 등의 기능 영역 외에도 언어습득론, 영어교재론, 교육과정검토, 영어발음교육, 문법교육,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게임과 노래를 활용한 영어교육, CLT 관찰실습, 영문학과 영어교육 등 영어교수법의 제반 이론과 실기 및 실습 영역, 그리고 영미문화, 영어문화실습 등으로 구성된 전공과목들과 교양교직 과목들을 포함하였다.

교사들은 이중 문화교육과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으로 영미문화교육 과목을 수강하고, 실습으로 영미문화와 한국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 후 일정 양식에 의거, 문화비교를 기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문조사는 영미문화실습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총 300명 중 설문항목에 표기하지 않거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교사들이 있어서 각 설문항목 당 응답인원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설문조사는 연수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마지막 30번에서 48번까지가 영미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문항이다(부록 참조). 이 문항들은 Park(2004)에서 초등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하되 김혜련(2003)의 일부 문항을 첨가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항목에 따라 문항의 선택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분석

영미문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는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즉, 영미문화권 국가에 대한 인식, 영미문화 경험/학습 매체에 대한 인식,

영미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의 영미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등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1. 영미문화권 국가에 대한 인식

영미문화권 국가에 대한 인식 영역은 문화교육의 표본으로서의 대상 및 영어권 문화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도를 조사한 30 번² 문항에서 34 번 문항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문 결과를 표 2 에서부터 표 6 에 걸쳐 정리하였다. 현재 교사들이 잘 알고 있고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학생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영미문화권 국가는 압도적으로 미국이며, 영어권 문화의 교수에 있어 표본이 되는 나라 또한 미국이다. 이는 1 차 교육과정이 제정될 당시 교육과정의 내용 설계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미국영어의 우선 사용을 명문화한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배두분, 2000; 최숙희, 2007).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영역에서 미국문화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영어 학습이 공교육기관이건 사교육기관이건 간에 전반적으로 미국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영어권 국가의 문화보다는 미국의 문화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표 2
30. 영미문화권 다룰 때 가장 표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영어권 국가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기타	합계
인원수	218	47	0	2	1	0	0	268
%	81.34	17.54	0.00	0.75	0.37	0.00	0.00	100

표 3
31. 교사 본인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영어권 국가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기타	합계
인원수	176	22	17	42	5	2	0	264
%	66.67	8.33	6.44	15.91	1.89	0.76	0.00	100

표 4
32. 학생들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영어권 국가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기타	합계
인원수	267	3	1	1	1	0	1	274
%	97.45	1.09	0.36	0.36	0.36	0.00	0.36	100

² 설문은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항목에 따라 응답이 누락된 경우들이 있어, 교사의 응답수가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표 5

33. 본인이 더 친숙해지고 알고 싶은 영어권 국가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기타	합계
인원수	51	167	15	25	2	11	1	272
%	18.75	61.40	5.51	9.19	0.74	4.04	0.37	100

표 6

34. 학생들이 더 친숙해지고 알았으면 하고 바라는 국가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기타	합계
인원수	83	158	1	19	2	2	4	269
%	30.86	58.74	0.37	7.06	0.74	0.74	1.49	100

그러나 교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며 학생들도 그렇기를 바라는 국가는 영국이다. 이런 응답은 미국 일변도의 문화를 접하는 환경에서 영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영어의 본류로서의 영국영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국문화 일변도의 체험에 문제를 느끼어 다른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접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바람직한 것으로서, 현재 세계어로서의 영어를 미국영어로 국한하지 말고 영어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라면 어떤 지역에서 통용되든지 그 가치를 인정하자는 움직임을 반영한다.

한편,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은 선행연구와 비교 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 Park(2004)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74%의 초등영어교사들에 의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국가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Park의 연구에 참여한 초등영어교사들이 더 잘 알고 싶은 나라로 호주(21.9%)와 캐나다(21.3%)가 뽑혔고 영국(17.5%), 뉴질랜드(13.1%) 등의 다른 영어권 문화에 대한 관심도 유사한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지도의 표본으로서 다양한 영어권의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김혜련(2003)의 연구에서 조사된 교사들과 인식을 같이한다. 두 연구에 나타난 초등영어 교사들의 이러한 시각은 영미권의 문화가 기존의 영국, 미국이라는 국가적 테두리를 넘어 영미문화지도의 표본으로 보다 확장된 의미의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중등교사들의 경우, 설문 33 번과 34 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61.4%, 58.7%)과 미국(18.75, 30.86%)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등영어교육에 비해 역사가 짧은 초등영어교육이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위상에 대한 최근의 인식을 더욱 잘 반영하는데 반해, “영미권”으로부터 교수의 모델과 언어재료를 찾아온 중등영어교육의 오랜 전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기능과 역할과 이에 따른 적정한 문화지도의 모형을 선정하는데 있어 재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영미문화 경험/학습 매체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영미문화에 대해 교실학습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통로로 경험을 할 수 있다. 설문문항 35 번과 36 번은 어떤 경로로 교사 자신과 학생들이 영미문화를 경험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우선순위로 응답한 것이며, 37 번은 현행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가 문화지도에 적합한가의 질문에 대한 의견이다.³

표 7
35. 교사 스스로가 영어권 문화를 접하는 수단/매체

1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인원수	14	5	19	7	53	101	16	4	52	2	273
%	5.13	1.83	6.96	2.56	19.41	37.00	5.86	1.47	19.05	0.73	100
2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인원수	3	3	7	5	35	112	56	21	30	0	272
%	1.10	1.10	2.57	1.84	12.87	41.18	20.59	7.72	11.03	0.00	100
3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인원수	5	8	7	7	33	27	63	42	76	1	269
%	1.86	2.97	2.60	2.60	12.27	10.04	23.42	15.61	28.25	0.37	100

(①학부 또는 대학원 교과목 수강, ②교사연수 프로그램, ③신문, ④잡지, ⑤TV, ⑥영화 (비디오/극장), ⑦컴퓨터/인터넷, ⑧서적, ⑨영어권 국가 여행 경험, ⑩기타)

표 8
36. 중고교생들이 영어권 문화를 접하는데 이용하리라 생각되는 수단/매체

1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인원수	42	53	0	2	37	91	27	0	20	0	272
%	15.44	19.49	0.00	0.74	13.60	33.46	9.93	0.00	7.35	0.00	100
2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인원수	11	42	1	2	32	113	57	4	9	0	271
%	4.06	15.50	0.37	0.74	11.81	41.70	21.03	1.48	3.32	0.00	100
3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인원수	24	40	2	4	42	40	83	9	27	0	271
%	8.86	14.76	0.74	1.48	15.50	14.76	30.63	3.32	9.96	0.00	100

(①학부 또는 대학원 교과목 수강, ②교사연수 프로그램, ③신문, ④잡지, ⑤TV, ⑥영화 (비디오/극장), ⑦컴퓨터/인터넷, ⑧서적, ⑨영어권 국가 여행 경험, ⑩기타)

³ 37번 문항을 포함해서 Likert scale을 사용한 경우는 평균점수를 표기하였다.

표 9

37. 현행 교과서 및 지도서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적당하다.

점수	1	2	3	4	5	합계	평균점수
인원수	1	6	42	171	51	271	3.98
%	0.37	2.21	15.50	63.10	18.82	100	

(① 매우 동의함 ② 동의함 ③ 잘 모르겠음 ④ 동의하지 않음 ⑤ 매우 동의하지 않음)

표 7 에서와 같이, 교사들은 영화를 통해 가장 빈번히 영미문화를 접하고 있고 TV 영상물과 인터넷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결과는 TV(24%), 영화자료(19.7%) 외에도 교사연수 프로그램(14.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터넷(6%)의 비중이 작았던 Park(2004)의 초등영어교사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한다면, 중등교육에서 영미문화경험에 인터넷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영미문화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의 문화경험에 대한 생각에서도 유사한 응답을 했지만 영상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교과서를 통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응답이 1 순위에서 15.44%를 차지한다.

표 8 의 36 번 문항에서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문화 경험에 대한 경로에 대해 관찰한 바를 토대로 추측하게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영미문화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리라고 응답했으나, 표 9 의 37 번 질문에 대해서는 81.92%가 교과서가 영미문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 않다는 불만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 결과는, 영미문화 교육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영어지식 습득에의 동기 유발에 일조를 할 수 있다면, 현재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의 영미문화 항목이 보다 체계적이고 흥미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사나 학생 모두 영상물을 통해 가장 많이 영미문화를 접하는 바, 영미문화에 대한 경험을 학습경험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미권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일정 틀에 맞추어 과제활동을 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의 측면을 파악하면서도 학습에 있어 정의적인 요소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영상물 외에도 보다 실물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자료 및 매체의 활용과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체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영미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표 10 에서부터 표 15 에 있는 설문문항들은 영미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문화사항들에 대한 교사의 선호도와 지식에 대한 질문이다.

표 10

38. 중·고교 교육에 영어권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점수	1	2	3	4	5	합계	평균점수
인원수	91	162	11	5	0	269	1.74
%	33.83	60.22	4.09	1.86	0.00	100	

(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잘 모르겠음 ④ 동의하지 않음 ⑤ 매우 동의하지 않음)

표 11

39.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영미문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수	1	2	3	4	5	합계	평균점수
인원수	100	146	10	11	3	270	1.78
%	37.04	54.07	3.70	4.07	1.11	100	

(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잘 모르겠음 ④ 동의하지 않음 ⑤ 매우 동의하지 않음)

표 10 에서 보듯이 중등교육에서의 영미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4.05%의 교사들이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91.11%의 교사들이 교사들 자신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Park(2004)의 초등교사들의 영미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77.1%)과 영미문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사(66.6%)와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와 필요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12⁴

40. 영어권 문화 사항 중 가장 배우고 싶은 것

1 순위	1 ^a	2	3	4	5	합계
인원수	70	148	23	27	0	268
%	26.12	55.22	8.58	10.07	0.00	100
2 순위	1	2	3	4	5	합계
인원수	65	78	43	78	0	264
%	24.62	29.55	16.29	29.55	0.00	100

(①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③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 기타)

⁴ 표 12-15의 설문문항에서는 4순위까지 응답을 요구하였으나, 3-4 순위는 응답하지 않은 교사들이 많았고, 그 영향이 미미하여 2순위까지만 포함하기로 한다. 표 6의 48번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다.

표 13

41. 본인이 현재 가장 잘 알고 있는 문화 사항

1 순위	1	2	3	4	5	합계
인원수	42	111	82	15	0	250
%	16.80	44.40	32.80	6.00	0.00	100
2 순위	1	2	3	4	5	합계
인원수	55	61	50	79	0	245
%	22.45	24.90	20.41	32.24	0.00	100

(①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③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 기타)

표 14

46. 중고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영어권 문화 사항

1 순위	1	2	3	4	5	합계
인원수	66	156	11	17	0	250
%	26.40	62.40	4.40	6.80	0.00	100
2 순위	1	2	3	4	5	합계
인원수	69	67	44	65	0	245
%	28.16	27.35	17.96	26.53	0.00	100

(①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③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 기타)

표 15

47. 다음 문화 사항 중 본인이 가장 자신 있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1 순위	1	2	3	4	5	합계
인원수	49	112	57	19	0	237
%	20.68	47.26	24.05	8.02	0.00	100
2 순위	1	2	3	4	5	합계
인원수	45	53	57	75	0	230
%	19.57	23.04	24.78	32.61	0.00	100

(①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③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 기타)

표 12 에서부터 표 15 까지는 5 가지 문화사항들 즉, ①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③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등에 대한 선택을 기초로 한 응답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중등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문화사항들은 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방식과 음악, 예술, 역사, 문학 등으로 응답하였다. 주목할 점은 같은 Big C 항목 중에서도 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등보다 간접경험이 쉽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등교사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사항으로는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알고자 하는 영역으로 영어권화자들의 생활방식과 행동방식과 같은 Small c 를 선택하였으므로 영어의 표현과 사용의 배경적 지식으로서의 문화사항들에 주된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고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야 하는 문화사항으로도 역시 영어권화자들의 생활방식과 행동방식을 들고 있으므로 의사소통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Small c 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small c 가 모국어와 깊이 관련이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지배적인 기저문화로서 (Brooks, 1975, Omaggio Hadley, 2001 재인용), 언어의 이해와 교육에 있어 보다 중요한 문화적 측면이라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항에 대한 영미문화의 구체적인 측면을 접하는 시간을 보다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mall c 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의 초등교사들의 관련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반면 그 외의 다른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어 주목할만하다. Park(2004)의 초등교사들 중 가장 많은 수(44.8%)가 영어권 화자들의 생활방식과 행동양식이 초등영어 수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그와 유사한 수(43.2%)의 교사들이 영어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영역을 필요로 한다고 답하고 있고, 그 뒤를 각각 음악, 예술, 역사, 문학(6.6%)과 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2.2%)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저자의 지적처럼 초등영어교사들은 학생들의 인지적인 수준을 고려할 때 문화의 지도와 체험이 사실적인 정보보다는 목표어와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등영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타문화권 화자들의 생활방식과 행동양식을 포함하여 보이지 않지만 보다 근원적인 small c 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의 영미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자신들이 중등교원 1 정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면서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실제 영미문화를 어떤 식으로 교실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 훈련을 받았다. 영미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과목들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과연 교사들은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제시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6 은 연수 과정에서 교사들이 영미문화를 접하며 훈련 받은 과목들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6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문항 44 번에서 교사들은 「영미문화」와 「영미문화 실습」 과목에서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 중 「영미 문화」에서는 영미문화의 특징과 한국문화와의 차이점 외에도 문화지도와 관련된 이론, 영미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할 때 관련되는 문화항목들을 다루었고,

「영미문화실습」에서는 *Love Actually* 라는 영화를 시청하고 그 영화에서 나타난 여러 문화사항들, 예를 들어, 장례식, 결혼식, 주택, 의복, 사랑방식 등을 한국의 문화들과 비교하여 제시된 표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으로 미루어보아 교사들은 간접적으로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접하며 실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44. 영미문화 이해를 높이는데 가장 도움이 된 과목

과목	1	2	3	4	5	합계
인원수	6	19	127	19	53	224
%	2.68	8.48	56.70	8.48	23.66	100

(①영어교수법/교육론 ②영어청해연습/영어회화 ③영미문화 ④영문학과 영어교육 ⑤영미문화실습(영화))

표 17

45.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과목	1	2	3	4	5	합계
인원수	6	19	127	19	53	224
%	2.68	8.48	56.70	8.48	23.66	100

(①영미문화이해 별도집중과정 ②문화항목에 초점을 맞춘 영어듣기/말하기 수업 ③영어권 일상생활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과정 ④영문학 작품을 이용한 문화 분석 및 학습 과정)

표 18

48.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화사항(2 순위까지)

1 순위	1	2	3	4	5	합계
인원수	70	136	17	22	0	245
%	28.57	55.51	6.94	8.98	0.00	100
2 순위	1	2	3	4	5	합계
인원수	69	67	29	73	0	238
%	28.99	28.15	12.18	30.67	0.00	100

(①영어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영어권 화자들의 생활방식과 행동방식 ③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기타)

또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사항에 대한 48 번 질문에서도 영어권 화자들의 생활방식과 행동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항은 앞서 표 13 의 41 번 문항에서 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문화사항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연수프로그램에서의 문화지도관련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초등영어 교사들과 중등영어 교사들의 응답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중등영어 교사들이 1 순위 1 위(55.51%), 2 순위 2 위(28.15%)로 선택하고 있는 영어권 화자의 생활방식과 행동방식에 대한 응답은 선행연구의 초등영어 교사들의 응답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Park(2004)에 참여한 초등영어 교사들은 문화교육과 지식과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영어권 화자들의 생활과 행동방식에 대한 요구(39.9%)보다는 영어어휘의 문화적 의미(48.6%)를 더 많이 다뤄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즉 small c 의 측면에 대한 요구는 중등영어 교사들이 느끼는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표 12-15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목표어권의 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에 대한 중등교사들의 요구는 1 순위 3 위(8.98%), 2 순위 1 위(30.67%)로, Park(2004)의 초등영어교사들의 동일항목에 대한 결과 4 순위 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학습자의 상황과 교육의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지도의 내용과 항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현직 중·고교 영어교사들이 영미문화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영미문화 교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들은 영어교육에서의 영미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문화사항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영미문화 항목은 Small c 의 사항들로서 전통적인 Big C 에 대한 선호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성향은 초등영어 교사에 비해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사 연수프로그램에 있어서 영미문화 교육은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되 학습자의 상황과 교육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중등교육 현장에서 영미문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중등영어교육에서는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영미문화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실현하여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바라는 만큼 갖고 있지 않다.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가 영어라는 언어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영미문화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야 하며, 그 일환으로 영어수업에서 영미문화 항목에 대한 흥미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를

지식이 아니라 타 문화 이해의 수단이라는 의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등교육의 공교육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및 소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과서 집필자들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영미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 실제로 7 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교과서들에서는 영미문화 항목을 별도로 담은 교재는 드물다. 물론 구체적으로 영미문화 항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듯이 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화나 독해지문 등에서 간접적으로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교과서 집필자들은 영미문화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주의 깊게 교과서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이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authentic materials)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영미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고, 수행평가를 비롯한 여러 과제의 형태에서 영미문화 항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학생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교사들이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역할을 인식하고 문화지도에 보다 다양한 영어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문화지도 표본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 보도자료.
- 김혜련. (2003). 초등영어 문화교육: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초등영어교육*, 9(1), 69-95.
- 박형기. (1982). 영어교육의 입장에서 비교한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특성. *영어교육*, 23, 9-31.
- 배두분. (2000). *외국어 교육 과정론: 이론과 개발*. 서울: 한국문화사.
- 유범. (2002). 문화교육 관점에서 본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대화 분석. *영어교육*, 57(2), 323-341.
- 이완기, 차경환. (1999).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 연구. *영어교육*, 54(1), 327-372.
- 이혜란. (1997).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수반되어야 할 영미인의 생활문화. *응용언어학*, 13(2), 149-176.
- 최숙희. (2007). 영어교육에서의 전통적 가치관과 미국문화. *영어어문교육*, 13(1), 261-282.

- 현정은, 김현숙. (2002).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반영된 문화 분석. *영어교육연구*, 14(2), 433-453.
- Banks, J. (1991). *Teaching strategies for ethnic studies*.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rown, D. E. (1991). *Human universals*. New York: McGraw-Hill.
- Geerts,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Hall, E. T. (1959). *The silent language*. Greenwich, CT: Fawcett.
- Hall, J. K.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language and culture*. London: Pearson Education.
- Halverson, R. J. (1985). Culture and vocabulary acquisition: A proposal. *Foreign Language Annals*, 18(4), 327-32.
- Kohl, L. R., & Knight, J. M. (1994). *Developing intercultural awareness: A cross-cultural training handbook* (2nd ed.).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Lustig, M. W., & Koester, J. (1999). *Intercultur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cross cultures* (3rd ed.). New York: Addison-Wesley Longman.
- Moran, P. R. (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Scarborough, Ontario: Heinle & Heinle.
- Ochs, E. (1996). *Culture and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acquisition and language socialization in a Samoan vill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chs, E., & Schieffelin, B. (1982). Language acquisition and socialization: Three developmental stories and their implications. *Sociolinguistic Working Papers*, No. 105. Austin, TX: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al Laboratory.
- Omaggio Hadley, A. (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3rded.). Boston: Heinle & Heinle.
- Park, J. K. (2004). Needs analysis for developing a culture-focused teacher training course. *English Language Teaching*, 16(2), 73-100.
- Shaul, D. L., & Furbee, N. L. (1998). *Language and culture*.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Press.
- Whorf, B. L.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Benjamin Lee Whorf*. Cambridge, MA: The MIT Press.

부 록

Ⅲ. 영미문화에 대한 설문조사(30-41)

30. 영미문화를 다룰 때 가장 표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영어권 국가는?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캐나다()
 ⑤ 뉴질랜드() ⑥ 아일랜드() ⑦ 기타()
31. 교사 본인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영어권 국가는?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캐나다()
 ⑤ 뉴질랜드() ⑥ 아일랜드() ⑦ 기타()
32. 학생들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영어권 국가는?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캐나다()
 ⑤ 뉴질랜드() ⑥ 아일랜드() ⑦ 기타()
33. 본인이 더 친숙해지고 알고 싶은 영어권 국가는?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캐나다()
 ⑤ 뉴질랜드() ⑥ 아일랜드() ⑦ 기타()
34. 학생들이 더 친숙해지고 알았으면 하고 바라는 국가는?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캐나다()
 ⑤ 뉴질랜드() ⑥ 아일랜드() ⑦ 기타()
35. 교사 스스로가 영어권 문화를 접하는 수단/매체 상위 3 개의 순위를 매기시오.
 ① 학부 또는 대학원 교과목 수강() ② 교사연수 4 프로그램()
 ③ 신문() ④ 잡지() ⑤ TV() ⑥ 영화(비디오/극장)()
 ⑦ 컴퓨터/인터넷() ⑧ 서적() ⑨ 영어권 국가 여행 경험()
 ⑩ 기타()
36. 중고교생들이 영어권 문화를 접하는데 이용하리라 생각되는 수단/매체 상위 3 개의 순위를 매기시오.
 ① 영어교과목() ② 음악/노래() ③ 신문() ④ 잡지()
 ⑤ TV() ⑥ 영화(비디오/극장)() ⑦ 컴퓨터/인터넷()
 ⑧ 서적() ⑨ 어학연수나 영어권 국가 여행경험() ⑩ 기타()
37. 현행 교과서 및 지도서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적당하다.
 ① 매우 동의함() ② 동의함() ③ 잘 모르겠음()
 ④ 동의하지 않음() ⑤ 매우 동의하지 않음()
38. 중고교 교육에 영어권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① 매우 동의함() ② 동의함() ③ 잘 모르겠음()
 ④ 동의하지 않음() ⑤ 매우 동의하지 않음()
39.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영미문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매우 동의함() ② 동의함() ③ 잘 모르겠음()

- ④ 동의하지 않음() ⑤ 매우 동의하지 않음()
40. 다음 영어권 문화 사항 중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을 1 위부터 4 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기타 항목에는 추가하고 싶은 문화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① 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 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③ 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 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 기타 ()
41. 본인이 현재 가장 잘 알고 있는 문화 사항을 1 위부터 4 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기타 항목에는 추가하고 싶은 문화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① 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 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③ 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 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 기타 ()

IV. 연수 프로그램에서의 영미문화 논의에 대한 의견(42-48)

42. 본 연수프로그램 이전에 영미문화의 이해/지도 관련 수업/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3. 본 연수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영어권 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 ① 그렇다 (36 번 문항으로)() ② 그렇지 않다 (37 번 문항으로)()
44. 어떤 과목이 영미문화이해를 높이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표시해주십시오.
- ① 영어교수법/교육론() ② 영어청해 연습/영어회화()
 ③ 영미문화() ④ 영문학과 영어교육()
 ⑤ 영미문화실습(영화)()
45.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영미문화 이해 별도 집중과정()
 ② 문화 항목에 초점을 맞춘 영어듣기/말하기 수업()
 ③ 영어권 일상생활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과정()
 ④ 영문학 작품을 이용한 문화 분석 및 학습 과정()
46. 중고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영어권 문화 사항을 1 위부터 4 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기타 항목에는 추가하고 싶은 문화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① 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 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 ③ 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 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 기타 ()
47. 다음 문화 사항 중 본인이 가장 자신 있게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것을 1 위부터 4 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기타 항목에는 추가하고 싶은 문화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① 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 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③ 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 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 기타 ()
48. 다음 중 어떤 문화사항이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1 위부터 4 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기타 항목에는 추가하고 싶은 문화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① 영어 어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② 영어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③ 음악, 예술, 역사, 문학() ④ 제도, 관습, 가치관, 태도()
 ⑤ 기타 ()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한 호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전공
 442-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번지
 Tel: (031) 219-2821
 Email: hhan@ajou.ac.kr

김현옥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전공
 442-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번지
 Tel: (031) 219-2824
 Email: hokim67@ajou.ac.kr

Received in Oct. 2007

Reviewed in Nov. 2007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 2007